

다니엘 개관

1. 개요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독특한 구조를 지닌 책으로, 역사서와 묵시문학이 혼합된 예언서입니다. 유다 포로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궁정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합니다.

- 1-6 장: 역사적 서술 중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과 구원)
 - 7-12 장: 묵시적 환상 중심 (세계 제국의 몰락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

2. 저작 연대

전통적으로는 다니엘이 직접 기록하였고, 그 기록 시기는 주전 6 세기경, 포로기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학자들은 2 세기 헬라시대(주전 165 년경)에 “후대에 쓰인 위서”로 간주하지만,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전통은 6 세기 저작설과 다니엘 저작설을 분명히 지지합니다.

예수님도 다니엘을 “선지자 다니엘”로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마 24:15).

3. 저자

다니엘은 유다 귀족 출신으로, 주전 605 년 바벨론으로 포로되었고, 거기서 고관으로 훈련받고 왕궁에 들어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궁정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음료를 거절하였고(1 장),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기도와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4. 기록 목적

-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
 - 열방의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함.
 - 장차 올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를 묵시적으로 보여줌.
 - 성도들에게 정결한 삶과 신앙적 절개, 믿음의 인내를 요구함.
-

5. 단락 구분

단락	범위	
1장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절개	
2장	느부갓네살의 꿈 - 신상 환상 (제국의 흥망과 하나님의 나라)	
3장	풀무 불 속의 세 친구 - 우상 숭배 거절	
4장	느부갓네살의 꿈 - 교만과 짐승화, 회복	
5장	벨사살의 잔치 - 벽에 쓴 글과 심판	
6장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 기도의 신실함	
7장	네 짐승 환상 - 메시아 인자 같은 이 등장	
8장	숫양과 숫염소 환상 - 메대-바사와 헬라 제국	
9장	70이레의 환상 - 회개기도와 메시아 도래 예언	
10-12장	마지막 묵시 - 이스라엘의 고난과 장래 구원	

6. 중심 메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시리니,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단 2:44)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무너뜨렸다.” (단 2:34)

다니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나라”입니다.

- 세상의 나라는 금, 은, 동, 철과 같이 점점 약화되며 무너지지만, 나뉘는 세우는 나라는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 그 나라의 왕은 인자 같은 이(7:13-14),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모범적 증인입니다.
-

7. 신학적 이슈

① 묵시문학의 상징 해석

- 다니엘 7-12 장의 환상은 상징과 예언이 복합되어 있어 해석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 개혁주의는 이 상징들을 역사적·종말론적 이중 성취로 봄니다:
 - 예: 70 이레는 바벨론 포로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종말의 재림까지 포함함.

② 인자(人子)와 메시아 사상

- 7:13-14의 인자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자기 호칭으로 반복되며, 신성한 권세와 왕권을 부여받은 메시아로 이해됩니다.

③ 하나님 주권과 인간 왕국

- 다니엘서는 제국의 흥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 세상의 제국과 그 권세는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합니다.

④ 고난 속의 경건

-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치적 억압과 영적 혼합주의 속에서 경건을 지킨 모범적 인물들입니다.

- 이는 현대 교회가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다니엘 해석

① 섭리와 주권의 예언서

-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강조.
- 칼빈은 다니엘서를 "하나님의 섭리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② 그리스도 중심 해석

- 다니엘서의 모든 묵시는 결국 메시아 왕국의 도래로 수렴됩니다.
 - "뚝 돌", "인자 같은 이", "70 이레", 마지막 때의 부활"***은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③ 교회론적 적용

- 다니엘의 공동체는 흩어진 성도들의 교회, 곧 포로기의 남은 자 신학(remnant theology)을 반영합니다.
- 이는 오늘날 교회가 세속 문화 속에서 어떻게 거룩과 복음을 보존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④ 종말론적 통찰

- 다니엘서의 종말론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비유적, 예표적, 신약 중심으로 해석되며, 문자적 세대주의적 시각과는 구별됩니다.